

2026.09.20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본문: 사무엘상 3장1-10,19-21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와 설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의 특성에 따라 지성의 은혜를 주신다. 깨닫고 알게 주신다. 특별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려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엡1:17]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모든것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져야 한다. 이것은 마음과 관계가 있다.[고후4:4]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한다.[잠4:23]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한다.

<본론>

1.말씀이 희귀해진 영적 가뭄기

▶말씀이 안 오면 비가 안 오듯이 영적인 가뭄기가 온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이었다.[삼상3:1] 이 당시에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는데 사람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 하시기도 하시고 환상과 이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 특별히 꿈으로 주시

도 또 음성으로도 나타내주셨다. 특별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히1:1]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말씀의 경고와 깨달음도 무뎌지고 마음의 자기 소견과 중심이 되어 말씀을 돌이키지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가뭄기가 찾아와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무엘의 시대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이다. 특히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가뭄기가 오면 재앙의 시대를 만난다.[암8:11]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인 가뭄이 온 것이다. 오늘날은 말씀이 풍부한 것 같지만 영적인 가뭄기의 모습이 많다. 세상의 홍수와 같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미디어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빼앗기고 채워지고 있다.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이단과 증거들이 막 파고든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없다. 영적인 가뭄이 오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뭄이 개인적으로 오는 상태가 더 큰 문제이다. 그 영혼이 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지는 가뭄이 찾아와 메마르고 단비가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상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2.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거 인도하고 계신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보지를 못했다.[삼상3:7]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깨달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와 미신처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다. 바른 지식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힘든 시간을 통해 오기도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된다. 고난을 통해 원망과 아픔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가 하나님○니 더 큰 은혜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다.[욥42:5] 사무엘에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삼상3:10] 하나님은 영적 가뭄기인 사사시대에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된다. 개인의 삶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부터 선하신 역사가 나의 개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예배의 자리가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3.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무엘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면 우리와 말씀이 상관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계시와 이상을 제시하시고 지향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냥 신을 두려워하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가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지금은 이상과 꿈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다.[암3:7]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 언약을 듣고 믿는 자에게 말씀의 성취와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한다.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바울을 말씀을 전한다. [살전2:13] 하나님은 사무엘에 주신 말씀과 또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역사한다.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는 과정을 통해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 받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한다.[삼상3:21] 우리에게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도우시며 역사 하시기를 원하신다. [고후6:1-2]